

외갓집 누룽지 맛이 유난했던 까닭

조기조

도도독 도도도독 하고 가마솥에서 밥 녹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외할머니는 부지깥이로 불땀을 다독거리려 놓고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밥을 뜸 들이는 사이 부엌바닥에 밥상을 대여섯 개나 펼쳐 놓고 상을 차리는데 이모들이 함께 거들어도 밥상 차리는 일은 분주하기만 하였다. 한참만에 밥상 차리기가 끝나면 외할머니는 다시 아궁이의 불씨를 헤적거리려 불쏘시개 한 줌을 집어 넣었다. 아궁이가 환해지며 불길의 팔계 피어오르면 또다시 도도독 도도도독 하는 소리를 내며 진한 밥 녹는 내가 났다. 그렇게 하는 것을 밥을 '되자친다' 라고 했는데 조금 식은 밥을 덥혀줄 뿐더러 밥을 풀 때 누룽지가 주걱에 붙어 따라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외할머니는 스무 개도 넘는 밥사발에 모두 고봉밥을 푸고 나서 다시 양푼에 가강조롱하게 가윗밥을 담은 다음 누룽지에 들러붙은 밥을 닥 닥 긁어 국대접에 담았다. 외할머니는 주걱글깡이를 마지막 당신뭇으로 퍼담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누룽지를 긁었다. 누룽지는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멍석만 한데, 부엌칼로 열십자를 긁고 나서 주걱을 갖다 대면 솔바닥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왔다. 그리고 누룽지를 긁고 난 가마솥에 송충물을 두세 바가지 붓고 나면 자옥한 수증기가

피어올라 검게 그을린 서까래가 드러난 천장을 자욱하게 덮어 부엌을 꼼속 같이 만들었다. 밥 푸는 일을 끝으로 밥상이 다 차려지면 외할머니는 “밥상 들어 가!” 라고 소리쳤다. 그제서야 방에 있던 장정들이 나와서 두 명이 상을 하나씩 들고 밥사발 숫자에 따라 각각 안방, 건넌방, 사랑방 등으로 나르는 모습은 마치 부잣집 잔칫날 과방에서 차림상 나가듯이 신나 보였던 것이다.

나는 외갓집에 가게 되면 밥 때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느라 부엌에서 쭈뼛거리다 외할머니한테 지청구를 먹기 일쑤였다. 요는 그누룽지에 있었다. 밥보다 누룽지가 더 좋았다. 그렇기도 할 것이 가난에 이끌이 났어도 변변찮은 건건이에 보리가 반 넘어 담긴 밥을 먹느니 고소한 누룽지가 한결 윗길이었다.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는 다미가 깔린 제련소 사택에서 살았는데 연탄불 아궁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소한 누룽지를 먹을 수 없었던 까닭도 있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주말이 되면 자주 빈 도시락을 들고 외갓집에 갔다가 월요일 아침 도시락에 밥 대신 누룽지를 가득 담아서 곧바로 학교로 가곤 했을 정도였다. 외갓집에는 외할머니가 딸 둘을 낳고 후사가 끊겨 작은 외할머니를 들여 데리고 온 자식까지 일곱을 키웠던 까닭도 있지만, 사랑채에 하숙을 쳤기 때문에 커다란 가마솥에 늘 푸짐하게 밥이 끓었고 그래서 누룽지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랑채 하숙생들은 선입견에 따라서 함께 살기에 좀 거부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특이한 직업 때문이었다. 면면을 살펴 보자면 거지, 땅꾼, 떠돌이 점쟁이, 장돌뱅이, 야바위꾼 등등이었고 신체적 특징도 외팔이, 외다리, 앓은뱅이, 곰보, 맹인, 불에 크게 덴

사람 등 다양했다. 외갓집에서 하숙을 치게 된 것은 우연히 장돌뱅이 하나를 재워 주면서 시작되었다. 그 장돌뱅이는 하룻밤으로 부족했던지 미적미적 주저앉게 되었고 장마다 돌며 새끼 치듯 식구를 늘려 오던 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거기에 외할아버지가 장사를 하다 밀천을 거덜낸 뒤 식구들의 호구지책도 한몫 거들었다고도 했다. 그런데 하필 그런 사람들이냐고 식구들의 불멘소리도 있었지만 외할아버지는 다 삼시세때 밥 먹고 사는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어때서 그러느냐고 호통을 치셨다.

사실 그 하숙생들 가운데 능구렁이, 살모사, 까치독사, 화사, 무자치 등 갖가지 뱀들을 떡 주무르듯 하는 땅꾼에게는 호감이 가기도 했지만 거지들은 영 마음에 걸렸다. 땅꾼이 내 손과 팔에 백반을 발라 주고 뱀들을 만질 수 있게 해 줄 땐 마치 내 왕초 같기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거지들은 외갓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웬지 거북했고 특히 그들은 대개 불구자들이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은 더더욱 싫기만 했다. 가끔가다 어떤 거지아저씨가 “옛다” 하고 호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줄 때조차 느닷없이 뱀을 만난 것보다도 더 질겁하곤 했다.

한번은 하교길에서 그 거지아저씨들을 만나게 되었다. 친구들과 여럿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너 간밥 먹으러 안 오냐” 하며 반갑게 이는 체를 하는 것이었다. 외갓집에 사는 거지아저씨들이 동냥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한 사람은 외다리 에 목발을 짚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광목 동냥자루를 둘러멘 외팔이 거지아저씨였다. 그 거지아저씨들은 내가 외갓집에 가도 살갑게 구는 아저씨들이었다. 친구들의 시선이 내 얼굴과 거지들의 얼굴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며 나보다 더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거지아

저씨들은 그런 외중에도 왜 인사도 않느냐는 등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한다는 등 새뿔삐진 소리까지 해대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급기야 주머니를 뒤져서 백 원짜리 동전 한 개를 내 손이기에 쥐어 주었다. 내가 하도 황당하여 막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에 다행히 거지아저씨들은 “놀러 와!” 하는 소리와 함께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날 이후로 친구들 사이에서 외삼촌을 거지로 둔 아이가 되고 말았다.

나는 집에 돌아가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다시는 외갓집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 온 가족이 모두 외갓집에 갔을 때 엄마가 외할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전했던 모양이다. 내가 누룽지를 오물거리고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다가와서 “간밥이 맛있냐?” 고 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니 집 간밥보다 더 맛있냐?” 고 재차 물어 왔다. 또 다시 내가 그렇다고 머리를 끄덕이자 “그 간밥이 맛있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첫째, 둘째를 따지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외갓집 식구들이 먹고 사는 것은 거지들 덕분이다. 거지들은 성치 않은 몸으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한다. 어떤 집에서 문전박대도 당하고 또 다른 집에서는 옥을 얻어먹고 쫓겨나기도 하면서 부잣집에서도 한 주먹, 가난한 집에서도 한 주먹, 그렇게 얻어 오는 것이 동냥이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지들이 산다. 그것이 살면서 적선을 쌓는 것이다. 누구는 쌀로 주고, 어떤 사람은 보리로 주고, 콩으로도 주는 동냥을 얻어오면 할아버지는 그걸 받고 저 거지아저씨들을 밥해 주고 재워 주는 것이다. 거지들이 얻어온 부잣집 쌀, 가난한 집 보리, 마음씨 착한 사람 집 콩들을 함께 섞어 밥을 하니까 그 간밥이 다른 간밥보다 더 맛있는 것이다.

그런 외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며 무슨 말인지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같았지만 입 속에는 한참을 씹지 못한 누룽지가 툭툭 붙어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거지아저씨들이 동냥을 해온 곡식들을 뒷박으로 되고 주판을 툭겨 계산도 하며 그 명세를 적어두곤 하였다. 말하자면 거지아저씨들의 치부책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동냥으로 모아진 곡식들은 그달 그달 쌀금을 쳐서 숙식대를 제하고 환전을 해주었는데 얼마간의 돈을 손에 쥐는 날에는 거지아저씨들의 얼굴이 보기 좋게 환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날 저녁이면 사랑채에서는 막걸리를 받아 놓고 왈자지껄하게 삼봉이나 육백판이 벌어지곤 하는 것이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외갓집에 가는 일이 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막 돌아와 교복을 벗어 놓고 마당으로 나서는 데 외갓집의 거지아저씨들이 사립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한 이태 만에야 보는 얼굴들인 것 같았다. 그 거지아저씨들도 “너 여기 사냐?” 하며 놀랐다는 얼굴들이었다. 나도 깜짝 놀라긴 했지만 마치 오랜만에 만난 외삼촌처럼 그 거지아저씨들이 반갑기만 했다. 내가 왜 그렇게 반가워하는지 스스로도 의아해할 정도였다. 나는 외갓집 안부를 묻고 그 거지아저씨들은 우리 집 안부를 묻으며 몇 마디를 나누었고 거지아저씨들에게 두명에서 물 한 바가지를 퍼다 주었을 뿐인데 참으로 알 수 없는 친근감이 들었다. 거지아저씨들이 마루도 없는 토방에서 다리섬을 하고 일어설 무렵 나는 얼른 부엌 채독을 열고 쌀을 한 뒷박 퍼들고 나왔는데 거지아저씨들은 막무가내였다. 아마도 우리 집 꼴을 보고 사는 게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억지를 부리며 쌀 동냥자루에 부어 주었다. 거지아저씨들은 “허

허, 참...”이라는 말로 고맙다는 소리를 남기고 하나는 한쪽 빈 바지가랑이를, 다른 하나는 한쪽 빈 소맷자락을 펼리며 읍내 쪽을 향해 휘적휘적 걸기 시작했다. 언젠가 거지아저씨들이 병신다리로 하루 오륙십 리를 걷는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그 뒷모습이 멀리 작아질 때까지 쌀바지를 든 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그 거지아저씨들의 마지막 모습일 줄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1980년대 초 군입대를 앞두고 인사를 드리러 외갓집에 갔다. 몇 해만인지도 가물가물했다. 사랑채를 둘러보았다. 방에는 이불보따리와 잠동사니들만 쌓여 있었다. 여기 살던 아저씨들 다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더니 외할아버지는 다 내보냈다고 얼버무리며 눈길을 돌리셨다. 그때 외할머니가 힘 들이지 않고 “민에서 나와서 다슴으로 데려 갔어” 라고 한마디 하였다. 나는 부엌으로 가 보았다. 부엌은 가마솥을 뽑고 조그만 양은솥을 얹혀 새로 단장을 해 놓았다. 식구가 많을 땐 말가웃 쌀을 안쳤다는 가마솥은 뒤안에 내다 놓아 붉은 녹과 푸른 이끼가 낀 채 빗물만 가득 담겨 있었다. ■

조기조 kijojo@korea.com | 노동자문학연구소에서 활동 중. 『실천문학』 신인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시집으로 『낡은 기계』가 있다.